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영탁



20세기까지의 인류역사가 좌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우뇌의 시대라 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소위 좌뇌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좇아있었다. 교육도 인간의 좌뇌를 개발하는데 치우쳐 있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지식근로자를 배출하였다. 나라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엄청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

다르다. 풍요의 시대에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무리 잘 따져서 설명하더라도 시각적 또는 정신적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면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수천 년 지속되어 온 좌뇌 중심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좌뇌형 사고에 운전석을 맡기고 우뇌적 사고를 조수석에 앉혔다면 이제는 우뇌에게도 이따금씩 운전대를 잡

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장 지식 낱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머리로 는 수공할지 몰라도 가슴으로 느끼면서 감동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수도분할 의 문제를 이해하면서도 정부시책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감성적인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를 정리해 보자.

첫째, 집단지성을 모아 활용해야 한다.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도록 하자. 아무리 좋은 일도 독선적으로 처리하다보면 그르치고 만다. 이제는 영웅이 없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이 다 현명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논리적 설명보다는 감성적 설득이 필요하다. 누가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반대하는 세상이다. 필요하고 옳은 일인데 왜 찬성하지 않느냐고 따져 봤자 소용이 없다. 마음이 움직이도록 처음부터 꺼안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작부터 여러 사람이 동참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의 일처리가 아니고서는 되는 일이 없는 별난 세상이 되었다.

셋째, 매사를 솔직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PC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밖으로 나다니면 하루에 수십 번씩 감시카메라에 찍힌다.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투명해졌다.

이제 정부나 기업은 과거보다 더 투명하고 더 솔직하게 일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가 워낙 발달해 있어 정부나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는 물론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의 솔직하고 투명한 일처리가 바로 국민이나 소비자의 이해와 협조를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확보해 나가는 길이다.

21세기는 우뇌적 사고가 크게 작용하는 감성의 시대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좌뇌 중심의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뇌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논리적 접근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유를 들이대면서 따지기 보다는 마음을 움직여 내권을 만들어야 일이 성사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뇌와 감성의 시대

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과소 평가되고 무시되었던 우뇌형 재능이 도약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원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이 한 말로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이지만 요즘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차가운 머리가 지성 즉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의미하고, 따뜻한 가슴이 감성 즉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 소통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예를 들어 짧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얘기 낱기를 권유했다고 하자. 장차 다가올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의 문제

이 사람들의 지혜를 잘 모으면 아무리 잘나 사람도 당해 낼 수가 없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장한 개개인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세상을 무서운 속도로 바꾸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꾸는 방식까지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가 별의미가 없다. 굵은 머리보다 긴 꼬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지도자 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다수 보통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위키노믹스(Wikinomics)는 인터넷시대의 일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의 협동이 곧 그것이라고 한다. 이런 관에 아직도 정부나 기업에서 큰일을 구상할 때 몇몇이 모여 배타적으로 계획을 세우다가는 일을 그르치게 십삼사다. 일을 하기 전에 세상환경이 어떻게 변

시설

‘돈봉투 사건’ 실제 장 당선자가 공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팀이 15일부터 전남도교육청 간부들의 교육감 당선 축하금 전달사건과 관련해 사무관과 장학관 이상 간부 6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인사를 가려내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장만체 교육감 당선자가 16일 돈봉투 전달자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장 당선자는 이날 “명단 공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던 하겠지만 공개 자체가 치유책은 아니다”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조사 대상자 모두가 당선자와의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파악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 당선자의 ‘돈 봉투 관행’ 폭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된다면 도교육청 내부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실체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육청 내에서는 돈 봉투 사건을 놓고 전달

자 이름이 난무해 억울한 사람까지 나오고 있고 상호불신이 심화되는 등 조마조마 혼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 당선자는 관련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 비리를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몇몇 교직원의 비리가 마치 수천명의 교직원인 것처럼 ‘부패집단’으로 매도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한 공무원은 반드시 인사상 책임을 물렸다고 굳게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말 바꾸기하는 것도 당선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아울러 “전남교육 가족 80%가 부패하고 20%가 무능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진의가 왜곡된 것이지만 같은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한 것도 경솔함이 묻어난다.

장 당선자는 사건의 실체를 저울질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가볍게 보았다면 취임 이후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국제회의 광주 유치’ 인프라 확충 시급하다

광주시의 국제회의 유치 실적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광주 의 지난해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전년보다 4건 늘었으나 전국 대도시 가운데서는 6위에 그쳤다.

서울이 151건으로 개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제주(61건)와 부산(41건)이 2, 3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인천(26건)은 물론 대전(2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시아 문화수도이자 지난 2007년 문화관광부로부터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받은 광주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실적이다.

광주의 국제회의 개최가 타 도시에 비해 부진한 것은 열악한 인프라가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국제회의 유치 조건만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연히 국제회의 유치를 늘릴 수 밖에 없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의 경우

좌석수가 1200석에 불과해 국제적인 회의기준인 2000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회의 개최시 각 과별로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수용인원 최소 100명)도 10개 이상 확보해야 하나 현재 보유인원 회의실 10곳의 수용인원은 30~50명에 그치고 있다.

특급호텔 부족은 국제회의의 광주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한지 오래다. 현재 광주에서 운영되고 특급호텔은 라마다 호텔이 유일하다.

전시컨벤션산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단순한 국제회의의 유치가 그치지 않고 전시와 이벤트, 각종 관광산업과 연계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여기에 국제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제2 컨벤션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성을 살린 공격적 마케팅 등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윤숙자



임산모의 소망은 아이의 건강일 것이다. 아이의 손가락이 다섯개이기를 바라고 입천장이 정상 형태이고 정신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아이가 의사, 변호사, 과학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임산모는 없을 것이다. 아이를 임신한 여성의 소박하면서도 가장 큰 소망은 오로지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모는 보기에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먹고, 평소에는 듣지 않던 고상한 음악을 듣는다. 말과 행동도 조심하며, 장례식은 가지 않는 등 태아가 나쁜 것을 접하지 않도록 주

임산부는 평상시보다 게을러지기 때문에 첫술집에 소홀해져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지라도 임신 후에 잇몸질환을 앓는 경우가 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치과 치료를 꺼리기 때문에 충치, 잇몸질환, 골염, 사람나 주위 염증, 심지어 골수염이 있는데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임신 후에는 참을 수 없는 급성염증으로 진행되어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임산모가 겪는 심한 통증은 임산모 자신에게 해로운 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유해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미

건강한 임신 준비

의한다. 특히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사진촬영 등을 삼간다.

안타깝게도 임산모가 치료에 내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임신 전에는 참을만 하던 치통이 갑자기 심해지고 잇몸상태가 나빠져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치과에 오게 된다. 치과에 오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게 되고 마취주사를 맞고 치아를 치료하게 된다. 또한 약을 복용해야 하기도 한다. 방사선사진촬영, 마취 주사제와 내복약이 태아에게 안전하지는 않은 편이다. 치료에 대한 공포감을 떨칠 수 없어 결국 치과 치료 자체보다 임산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성 질환 외에도, 통증이 없어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우고 있다가, 임신 중에 발견되는 질환도 있다. 뼈 속에 발생하는 물혹(낭), 양성 종양 등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중에 낭이나 종양이 커져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나치게 자신하며 “건강하니까 치과에 한 번도 안 갔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임신 가능한 연령의 젊은 여성들은 임신 전에 미리미리 치아와 뼈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충치치료·잇몸치료·사람나 발치·염증치료 등은 미리미리 서두르고, 후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악골의 질환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치과에서 파노라마방사선사진을 촬영하면 한 장의 방사선사진으로 쉽게 전체 치아와 골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건강하고 즐거운 임신 기간을 준비하는 것은 결혼과 임신을 앞둔 젊은 여성이 가져야 할 생활의 지혜일 것이다. <전남대 치과병원 치과방사선과 교수>

기고

이인곤



해를 머금고 있는 사할 항일암으로 가는 길목인 여수시 돌산읍 무술읍에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바다 어·패류, 산호, 화석 등 해양수산생물과 각종 유물 등 2만 5000여 점의 전시품이 있고 서남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회귀 어패류를 관람객들이 직접 잡아보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수족관이 관람객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대형전용 거북수족관에는 국내 최다인 8마리의 바다거북이 느림의 미학을 상징하는 듯 유연하게 춤을 추고 있다.

협력과 상생의 바다거북이야기

바다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바닷가로 올라와 모래 속에 구멍을 파고 100여 개의 알을 낳아 모래로 덮어 부화되도록 하는데 이 행위를 반복적으로 5~10회를 하고 있어 총 산란 수는 500~1000여 개에 이른다. 이 알에서 부화한 어린 바다거북은 각자의 역할분담과 상생의 협력을 통해 모래구멍이탈을 탈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즉, 알에서 깨어난 어린 거북 중 맨 위에 있는 녀석은 천장을 뚫고 가운데 있는 녀석은 벽을 허물며 아래에 있는 어린 거북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씹아 다지면서 다함께 밖으로 기어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 실험을 해본 결과 알 한 개를 묻어 놓았을 때는 탈출률이 27%, 2개를 묻어 놓았을 경우 84%인데 비해 4개 이상일 때는 100%의 탈출률을 보였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돕고 협력하면 다 같이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항일암이 자리 잡고 있는 여수시 돌산도의 금오산도 풍수지리상 바닷속으

로 막 들어가는 거북의 형상이라 하며 바위표면은 온몸 거북등처럼 문양이 새겨져 있어 쇠금(金)자와 큰바다거북오(鰲)자를 써 금오산(金鰲山)이 했고 항일암의 옛이름도 거북구(龜)자를 써 영구암(靈龜巖)이라고 하였으나 전남도 해양수산과학관에 바다거북을 다량 전시하고 있는 것도 필연이 아닌가 싶다.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식용이나 장식용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바다거북을 보존하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8개 주에 22개 보호기지가 있고 중국 광둥에서도 바다 거북을 보호하면서 관광상품과 연계해 여행객들에게 바다거북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 일본도 붉은 바다거북 산란장으로 유명한 시코쿠 무로타 아난해안국립공원 일대에서 인공부화한 어린 거북 방류행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바다거북에 대한 자원보호와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대로 어린 바다거북이 모래구멍이 속에서 빠져 나오는 데는 협력과 상생에 기인한다.

지방선거 등 지역사회 각분야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반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소모적인 싸움으로 공멸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으로 상생할 것인가? 어린 바다거북의 탈출방법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

無等鼓

17일 태극전사들이 아른테티나와 한관 대결을 벌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은 남아공 민주화 역사의 중요한 무대 가운데 한 곳이다. 백인정권의 흑인 탄압에 저항하다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넬슨 만델라가 1990년 2월 석방 이후 첫 대중연설을 한 곳이다. 요하네스버그의 빈민가에 자리한 이 경기장은, 흑

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축구의 성지 같은 곳이었다. 만델라는 운동장까지 폭 채운 12만 군중 앞에서 “인종차별 없는 남아프리카를 만들자”며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양팔을 벌려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차별 없는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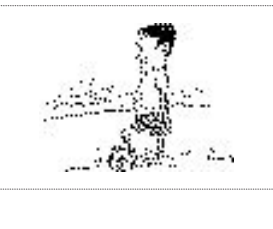
통’ ‘용서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연설이 있던 지 4년2개월 뒤에 이 나라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됐고, 1945년 이후 계속돼온 아파르트헤이트(인종 차별 정책)를 전면 폐지했다. ‘축구를 메시지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로 구현됐다. 그는 남아공 최초로 월드컵 경기를

진의 힘이 될 것임을 믿어냈다. 만델라의 열망은 2000년 FIFA집행위에서 독일이 1표 차로 석패하며 좌절되는 듯했다. 하지만, 제프 블라터 FIFA회장이 2010년 대회 개최권을 아프리카 대륙에 준다고 결정함으로써

남아공월드컵의 길을 열었다. 만델라는 지난 11일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영상으로 인사했다. “인류의 너그러움 마음은 모든 역량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상태를 배려하는데 인색한 우리 정치권이 되새겼으면 하는 문구다. /김주정 정치부장 jnews@kwangju.co.kr

사커시티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체육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